

미 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 한미동맹 상징사업으로 부각 향군, 6월 호국보훈의 달 추가 모금, 7·27정전 기념일 전달

“한미관계 새로운 전기...한반도 평화장착·국익에도 도움”

향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미 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한 성금 모금운동을 기업과 전 국민으로 대상을 추가 확대하여 펼치기로 했다.

애초 향군은 지난해 9월10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 향군의 조직과 향군 회원, 참전 및 친목단체 등을 대상으로 9개월 동안 성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여 5억6천 여 만원을 모아 오는 6월25일 워싱턴을 방문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에 전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진호 향군회장이 합참의장 당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휘했던 존 킬러리 전 연합사령관이 최근 '추모의 벽' 재단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추모의 벽' 건립 사업이 한미동맹의 상징 사업으로 부각되었으며 이에 향군은 '추모의 벽' 건립 성금 모금을 기업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하

고 추가 모금에 들어갔다.

모금된 성금은 오는 7월27일 김진호 향군회장이 7·27정전협정기념행사에 맞춰 워싱턴을 방문, 재단에 모금액을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 7·27정전협정기념행사가 국가행사로 승격되어 미 정부 고위급이 참석하여 주관한다. 아울러 성금이 목적에 맞게 쓰여 질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장치와 신뢰성도 담보할 계획이다.

김진호 회장과 킬러리 장군은 1999년 1차 연평해전을 비롯하여 재임기간 중 5차례에 걸친 북한의 군사도발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면서 최고의 파트너십을 발휘한 바 있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실감한 바 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양국의 예비역 단체 수장으로 다시 만나 한미동맹 강화와 6·25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추모의 벽' 건립 사

업에 힘을 합침으로서 사업은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군은 이번 기회에 보다 더 많은 기업과 국민들이 모금에 동참하여 미국참전용사들에 대한 고마움이 미국 조야와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된다면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한미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모의벽 건립사업은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 몰에 있는 한국전참전기념 공원 내 추모의 연못을 중심으로 둘레 50m, 높이 2.2m의 원형 유리벽을 설치하여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미군 3만 6천명과 배속되어 함께 싸우다 전사한 카투사 8천 명 등 약 4만 4천여 명의 이름을 새겨 넣는 것이다.



한국전참전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 예정지



김진호회장과 존 킬러리 한국전참전용사 추모재단회장 (전 한미연합사령관)

추모의 벽 건립성금 모금 홍보지원, 국방홍보원·서울신문에 감사패..... 2면
'휴' 향군전용모역 국립묘지에 준해 예우 3면

향군 성명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강력 대응 촉구 국제사회 정면 도전, 9·19군사합의 명시적 위반

북한이 5월4일 원산 호도반도에서 미사일과 로켓을 발사한데 이어 5월9일 평안북도 구성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등 잇따른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향군은 5월10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목표로 합의한 9·19 군사합의의 명시적 위반이라고 북한을 규탄했다.

향군은 이날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한 향군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국가안보는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소극적 대응은 북한의 나쁜 선례를 묵인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 시키는 것"이라며 정부에 "북한의 잇따른 도발의도를 명확히 파악하여 강력히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또 "우리 군에 북한의 도발에 상응한 대응훈련을 즉각 실시하라"며 "이번 북한의 도발이 자체훈련이며 9.19군사합의에 위반이 아니라면 우리군도 이에 상응한 대응훈련을 즉각 실시하여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차제에 9.19군사합의의 자체 방어훈련 수준에 대한 개념 재정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와 군은 최근에 실시한 아세안 18개국 연합해상훈련과 한·미·일 안보협력회의의 결과를 기초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필요시 1999년 6월 15일 제1차 서해연평해전 사례를 참조, 미군 증원전력과 전략자산 전개를 검토하여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에 적극 대응하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북한에 핵개발과 무력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하고 남북정상이 공동합의 한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기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기 전국 총회 소집 고

당회 2019년도 (제22차) 정기 전국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함.

- 다 음 -

1. 일 시 : 2019년 6월 20일(목) 11:00
2.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대방동)
3. 의결안건
 - 제 1 호 의안 : 2018회계년도 결산안
 - 제 2 호 의안 :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제 3 호 의안 : 임 원 보 선 안

※ 문의사항은 재향군인회 여성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417-1383, 02-417-3041

2019년 5월 20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여성회장 추 순 심



향군, 국방홍보원·서울신문사에 감사패 '추모의 벽' 건립 모금 홍보 적극 지원



고광현 서울신문사 사장과 배상기 사무총장.



이봉우 국방홍보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배상기 사무총장.

향군은 5월21일, 22일 성공적인 미 6·25전쟁 참전용사를 위한 '추모의 벽' 건립 성금 모금운동에 적극적인 홍보지원을 해 준 국방홍보원과 서울신문사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배상기 사무총장은 이봉우 국방홍보원장과 고광현 서울신문사 사장에

게 김진호 향군회장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하고 "추모의 벽 성금 모금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성공적으로 마감하는데 큰 도움을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향군은 지난해 10월15일부터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 내에 세워 질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한 모금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모금된 성금은 김진호 회장이 오는 7월27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66주년 정전협정 기념식에 참석해 추모의 벽 건립을 추진하는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KWVMF)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방홍보원, 2019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국방홍보원이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S등급)에 선정돼 5월23일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 운영 취지에 따라 매년 S, A, B, C 4등급 체계로 종합평가를 실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달성한 기관에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국방홍보원은 현 이봉우 원장 부임 이후 2017년 외부 전문 컨설팅을 통해 기관 전략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까지 '디지털 퍼스트' 및 '뉴미디어 중심' 전략을 추진해 뉴미디어 고도화와 플랫폼 최적화를 이뤄냈다.

국방홍보원이 운영하는 국방일보, 국방TV, 국방FM 등 전통 매체는 신속한 속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더욱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 입실호국원 태극기 체험행사

국립입실호국원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호국영령을 기리는 나라사랑 태극기 체험행사를 실시했다. 20일부터 펼쳐진 체험행사에는 입실군 향군, 대한적십자사 입실지부, 제35보병사단과 입실치즈과학고가 참여했다. 이밖에 한국청소년전북연맹과 익산 성북초 및 입실 성수중 등 학생과 사회단체 회원 600여명도 동참했다.

6·25참전 미군 전사·실종 유가족 방한

6·25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전사자, 실종자 장병들의 유가족 50명이 5월26부터 31일까지 한국을 찾았다.

이들 유가족들은 방한 기간 동안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유해 발굴 진행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으며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모락산 내 유해발굴 현장도 직접 살펴봤다.

또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6·25전쟁 참전 미군 전사·실종 장병 추모식' 참석 후 전쟁기념관을 둘러보았으며 육군 제25사단이 주관하는 네바다 전투 기념식에 참석했다.

육군훈련소, 추억 사진·사연 공모

육군훈련소가 5월27일부터 7월까지 국민과 국군 장병을 대상으로 '육군훈련소의 추억 사진·사연 공모전'을 개최한다.

사진 부문은 육군훈련소를 배경으로 한 인물·풍경, 육군훈련소에 대한 추억이 담긴 입영열차·전우·훈련·면회·병영생활 모습 등의 사진을 원본이나 파일로 보내면 된다.

또 사연 부문은 잊지 못할 교관·조교·전우 이야기, 우리 가족의 훈련소 이야기(3부자·5형제·3대째 훈련소 입소 등), 훈련소에서 주고받은 각별한 편지, 입영·훈련·면회·수료에 대한 추억, 훈련소에서 임무를 수행할 당시의 이야기 등을 접수한다.

오는 7월 31일까지 우편, 이메일,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9월 20일 육군훈련소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1명, 부분별 최우수 각 1명, 우수 각 3명 등 총 9명을 선정해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시상한다.

향군역사 바로알기 ⑨

호국보훈의 달 6월, 향군의 역할 다시 찾자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고 그 뜻을 가슴에 새기는 달이다.

그 중에서도 국민 모두가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할 것은 6·25전쟁이다. 우리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1,129일간의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어야 했다. 국군 14만 명, 미군 3만 7천 여 명, 유엔군 4천 여 명의 전사자와 남북한 민간인 200여 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1천만 이산가족이 발생했다.

그뿐만이 국토는 초토화되어 황폐해졌고, 국민들은 배고픔과 온갖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6·25는 민족의 재앙이었다. 그래서 6·25전쟁 중에 태어난 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제2의 6·25를 막고 국민들에게 호국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매년 다양한 안보활동을 해왔다.

6·25전쟁 중 출범한 재향군인회 매년 6월 다양한 안보활동 펼쳐 와

6·25를 상기하기위한 기념행사는 1985년 까지만 하더라도 향군과 자유총연맹 등 각 단체별 지역행사로 열렸었다. 그러나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과 안보상황의 변화로 전국적이고 범국민적 행사로 개최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86년 기념

행사는 향군단독으로 실시했다. 그러자 자유총연맹이 문제를 제기하여 다시 격년제로 주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향군은 1990년 이사회와 총회의 결을 거쳐 6·25행사의 단독 주관을 골자로 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하고 향군이 주관해야 하는 이유와 타당성을 정리하여 국방부와 정부에 건의하였다.

당시 강영훈 국무총리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1990년 6·25행사는 40주년이고, 행사에서 중심이 되어야할 참전용사가 고령화됨에 따라 "40주년 행사를 대규모로 의미 있게 추진할 것과 앞으로 6·25행사는 매년 향군이 주관하도록 관례와 하라"고 지시했다.

따라서 향군은 6·25전쟁 40주년 행사를 '자유 수호·민족화합을 위한 시민대회'로 명칭을 정하고 전국 시·도 및 시·군·구등 조직을 풀가동하여 6월 한 달 동안 전적비 및 총흔탑 참배, 전적지 답사, 보훈병원 위문, 6·25상기 안보강연 등 다양한 호국 안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6월24일 서울에서 열린 중앙행사에는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묘지 참배와 기념행사, 보신각 호국종 타종, 서울역 광장까지 차량 및 도보 시가행진을 벌여 연도에 나온 시민들로부터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그 이후 6·25기념행사는 향군이 단독으로 추진해 왔다. 1998년 50주년행사를 앞두고 범국가적 행사로 추진해 줄 것을 당시 김대중 정부에 건의하여 정부가 이

를 수용하고, 국무총리령으로 "6·25 50주년 기념사업회"를 발족시켰다.

또 각 부처별로 업무를 분담 6·25전쟁 교훈 계승, 참전용사 명예선양, 참전용사 복지확대, 전후세대 안보의식 고취, 참전국 유대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렇게 향군은 국내 최대의 안보단체로 매년 6·25행사를 주관하면서 본연의 위상을 드높이고, 국민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사랑과 신뢰를 받아왔다.

6·25 행사 정부행사로 지정 후 향군의 호국보훈의 달 안보활동 축소

그러나 2010년부터 6·25행사가 정부 기념행사로 지정되면서 국가보훈처가 주관하게 되고, 향군은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향군의 6·25행사와 호국보훈의 달 안보활동은 축소되고 말았다.

그러나 향군은 안보활동이 고유의 역할과 사명인 만큼 우리의 선배들이 6월 한 달을 대국민 안보계도활동 기간으로 정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것처럼 이 시대 상황과 여건에 맞는 안보활동을 찾아서 전후세대들에게 잊혀져가는 6·25의 교훈을 상기시키고 호국안보의식을 제고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홍보실>

3대 현역 복무 병역명문가 741가문 선정

대통령 표창 2가문 등 총 21가문 시상

제16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경두 국방부장관, 6·25참전유공자회, 광복회 등 유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5월23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

이날 대통령표창 최종옥, 박영만 가문, 국무총리표창 한일부, 안윤찬, 공헌배 가문, 그리고 국방부장관표창 5가문, 국가보훈처표창 1가문, 병무청장표창 10가문 등 총21가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최종옥(71세, 경기도 남양주)씨 가문은 병역 이행자수가 가장 많은 가문으로 12명이 총 360개월 동안 군 복무를 했다. 1대 고 최창수(1927년생)씨는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갔으나 구사일생으로 탈출, 6·25전쟁 당시 의무병으로 참전해 많은 전우의 생명을 구했다.

또 다른 대통령표창을 받은 고 박영만(1914년생)씨 가문은 7명이 총 195개월을 군 복무한 가문으로 1대가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병역명문가다. 1대 고 박영만 선생은 광

복군가인 '압록강행진곡'을 작사했으며 이범석 장군을 도와 한미합작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부령으로 활동했다.

병역명문가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칭하는 말이다. 2004년부터 시작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역대 최다인 741가문 3,820명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5,378가문 27,154명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 패·증서와 병역명문가증을 교부하며,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명예의 전당'에 가문의 병역이행 사항 등을 영구 게시한다. 또한 병무청과 협약된 900여 곳의 국·공립 및 민간시설 이용 시 이용료 감면 등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역명문가 시상식은 병역을 명예롭게 마친 사람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호주 멜버른 한국전 참전기념비 제막식

호주 멜버른 한국전 참전기념비 제막식이 5월2일 호주 멜버른 마리브농시 Quarry Park에서 열렸다. 멜버른 한국전참전기념비는 호주와 지속적인 우호동맹을 강화하는 상징적인 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휴' 향군전용묘역 국립묘지에 준해 예우

향군, 회원복지 증진·희생정신 추모 ... 유족 자긍심 고취

향군은 회원들의 복리증진과 명예를 드높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기 위해 분당추모공원 휴와 지난해 협약 체결을 통해 조성한 향군전용묘역을 국립묘지에 준해 예우할 방침이다.

'향군전용묘역'은 향군이 100% 출자한 재향군인회 상조회가 분당추모공원 휴와 지난해 협약 체결을 통해 조성한 전용묘역이다. 향군상조회는 서울 강남권에서 20분, 분당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분당추모공원 내에 봉안시설 3000기와 수목장 89주를 마련하고 지난해 9월12일 기념식을 가진 바 있다.

향군전용묘역은 향군 임직원 및 향군 회원, 해외교포 중 국내 안장 희망자, 안보·친목단체 회원, 재향군인회 상조회원이라면 특전을 받을 수 있다.

향군전용묘역은 앞으로 국내



◇ '휴' 향군전용묘역 표지석

회원들과 고국 땅에 묻히기를 희망하는 해외지회 회원들에게 복리증진은 물론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며 국가유공자에게 임시 안치시설을 제공해 국가유공자 안장 심사기간 동안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유족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의전행사, 예우 등 국립묘지에 준한 묘역관리로 고인과 유족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향군전용묘역 '견학방문 프로그램' 운영

재향군인회상조회가 '향군전용묘역 견학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향군전용묘역 견학방문 프로그램은 묘역방문을 통해 시설소개, 안장시연(동영상 시청), 묘역순회 순으로 실시된다. 견학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차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참가 인원에게는 견학 후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향군전용묘역은 향군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향군전용묘역'이라는 특별한 곳에 모셨다는 안도감과 자긍심 고양차원의 특별한 안장의식을 진행한다. 또한 분당추모공원 '휴'와 함께 국립묘지에 준한 묘역관리를 통해 고인의 명예 고취, 유족에게는 안정감과 신뢰감을 제공한다.

향군전용묘역은 분당추모공원 '휴'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벽체식 야외 봉안담 3,000기, 수목장 890

위 규모로 운용 중이며, 금년 말에는 실내 납골시설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향군전용묘역은 향군회원, 향군상조회원을 대상으로 분양 중이며, 해외교포희망자, 안보친목단체 회원 등 이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향군전용묘역 정보 및 견학방문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향군인회 상조회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훈의 달

보청기 재향군인가족 특별할인 행사!!

70%

(양이 추가 할인)
~ 50%

세계적 브랜드의 보청기 취급

■ 독일 지멘스 ■ 미국 스타키
 ■ 스위스 버나폰 ■ 스위스 포낙

■ 예약 및 문의 ☎ 02-742-0114

■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14번 출구 신한은행옆 1층

신한 보청기

화재 목격, 신속 대응 피해 막아

육군 20사단 김희곤 중사·박윤철 상병

육군20사단 공병대대 김희곤 중사와 박윤철 상병이 민가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하고 신속하게 진화해 대형 산불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김 중사와 박 상병은 지난 4월 17일 훈련 중 임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다 경기도 양평군 원덕역 인근 산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한 뒤 연기가 보이는 방향으로 차를 돌렸다.



이어 신속히 군용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를 가져와 주불을 진화한 뒤 마을 주민과 협력해 산 쪽으로 번지고 있는 불길을 잡았고 잠시 후 소방차 10여 대가 도착해 화재는 완전히 진압됐다.

해군3함대, 자매결연 마을 찾아 봉사

농기구 수리 등 봉사

해군3함대 3수리창 군무원들이 지난 4월 20일 매결연 마을인 전남 신안군 압해면 신용리 마을을 찾아 농기구 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서는 집으로 찾아가는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군무원들은 화재

위험을 막기 위해 주택 누전을 점검하고 각종 전기 장비를 수리하며 재능을 기부했다.

군무원들은 평일 함정 수리·정비로 시간을 내기 어려워 주말을 이용해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3일에는 영암군 우리마을 복지센터를 찾아 센터 내 외부 청소 등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공군 8전비, 직업소개 교육

인근 초등학교 방문
항공우주 꿈 심어 줘



공군 8전투비행단(이하 8전비) 조종·정비·관제사들은 5월 7일 부대 인근 초등학교인 둔둔 초등학교를 방문해 직업소개교육을 통해 공군 직업에 대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해소하고 항공우주를 향한 꿈과 희망을 심어줬다.

어린이들이 공군이 무엇을 하는

지 알아볼 기회가 적었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방문을 계획한 8전비는 이날 공군 소개와 조종·정비·관제사 임무 소개와 함께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한 소정의 기념품도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해병대 최동호 소령, 교통사고 현장 구호

해병대2사단 항공대에서 근무하는 최동호 소령이 지난 4월 28일 교통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조치로 부상자를 구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선행을 펼쳤다. 최 소령은 이날 오후 1시쯤 김포시 운양동 장기 IC교에서 승용차와 트럭이 충돌하는 대형 교통사고를 목격했다.

최 소령은 즉시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현장으로 달려가며 119에 신고했다. 반파될 정도로 크게 파손된 승용차 엔진 부분에서 연기가 솟구치는 것을 확인한 최 소령은 즉시 시동을 끄고 부상자를 부축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주한미군장병 문화체험 행사

굳건한 한미동맹 공감대 형성

국방부는 5월 14일부터 16일 까지 주한미군장병을 초청하여 한국의 문화와 역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기·강원지역 안보현장 견학과 문화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주한미군사령부 등 각 부대에서 초청된 50명의 미군장병들은 안보현장인 을지전망대와 제4땅굴을 견학하고,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에서 사격 등 전투체험 행사를 가졌다.

또한 평창 어름치마을에서 백룡동굴 탐방, 양평 여물리 마을에서 송어잡기, 딸기 찹쌀떡과 가래떡 피자를 직접 만들

며 농촌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도 가졌다.

주한미군장병 초청 한국문화 체험행사는 지난 4월 대관도 캠프를 시작으로 총 5회에 걸쳐 경기·강원·충청·경상·전라지역 역사유적지 탐방, 농촌문화 체험 및 안보현장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주한미군장병들은 한국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써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를 가졌다.

국방부, '귀환 국군용사 초청

강화도 일대 안보현장 견학

귀환 국군용사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2001년부터 매년 초청행사를 개최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국방부는 5월 23일, 24일 귀환 국군용사 초청행사를 개최했다.

현재 국내 거주중인 귀환 국군용사는 총 26명이며 이중 귀환 국군용사 17명과 동반가족 등 약 30여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강화 평화전망대, 전쟁박물관 등 강화도 일대 안보현장을 견학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국방부는 "귀환 국군용사 초청행사가 귀환 국군용사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대해 정부 차원의 예우와 감사를 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신청 안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신청을 안내하오니 기간내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9. 6. 25. ~ 2021. 6. 30.(공휴일 제외)

2. 퇴직급여금 지급대상 : 현역에서 2년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사(당시 이등상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이상으로 퇴직한 군인 및 유가족

3. 접수처 : 각군 본부에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접수

• 육 군 : ☎ 042-550-7451

(우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16호
육군본부 제대군인지원처 직위개발협력과

•해 군 : ☎ 042-553-1156

(우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201호
해군본부 인사참모부 전직지원정책과

•공 군 : ☎ 042-552-1541

(우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03호
공군본부 인사참모부 전직지원정책과

•해 병 대 : ☎ 031-928-2816

(우18334)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시청로 1311 사서함 601-18호
해병대사령부 복지/전직지원처 전직대외협력과

•직접 방문시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제2정문 민원안내실

※ 해병대는 상기 해병대사령부(화성·봉담읍)로 방문 접수

4. 신청 제출서류 :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서 등

※ 신청서식은 인터넷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하단의 전역자지원 내 「59년퇴직급여금신청」메뉴를 클릭 후 신청 안내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육군(☎042-550-7451), 해군(☎042-553-1156),
공군(☎042-552-1541), 해병대(☎031-928-2816),
국방부(☎02-748-6638, 66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부산시 향군, 제28대 김윤호 회장 취임

향군 회원으로 자긍심과 긍지 갖도록 최선을 다할 것



부산시 향군(회장 김윤호)은 5월9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제28대 김윤호 회장 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신임 김윤호 회장은 “지난 한해 부산시 향군은 내부개혁을

위해 뼈아픈 변화를 유도해 왔으며 향군 위상 제고에도 큰 아픔을 이겨 왔다”며 “이제 부산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향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또 향군의 친목활동과 단합을 위해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회원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회장은 3사 5기로 임관했으며 육군 중령으로 전역 후 동의대학교 직장예비군 연대장, 육군 3사관학교 부산 동문회장, 부산진구 재향군인회 회장을 역임했다.

제주도 향군, 태국 6·25참전용사 방문

봉사활동 · 김진호 회장 친서 ... 감사 뜻 전달



제주도 향군(회장 김달수)은 5월19일부터 23일까지 회원 및 제주의료원 의료진, 제주미술협회, 이·미용 봉사팀, 제주대 ROTC 대학생 등과 함께 태국 보훈처 및 참전협회를 방문,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태국 6·25 참전 생존자 및 후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했다.

제주도 향군은 의료, 이·미용, 미술 분야 등으로 나눠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원희룡 제주지사과 김진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회장의 친서를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제주도 향군은 재향군인회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한류 문화 전파에 크게 기여했다.

호국보훈 추모 헌시

그대들의 이름은 영원불멸입니다

조국수호의 선봉에서
한 떨기 무궁화로 피어난 임들이여
대한민국을 지켜온 역전의 용사들

조국의 산하와 마나면 월남의 정글에서
자유 우방에서
승리의 햇불 높이 들었던 천하무적
그 힘찬 총성의 목소리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부르면 저 앞에서 당장 뛰어 올 것만 같은
전우들이여
슬픔이 너무 깊니다
목 놓아 불러보고 흔들어 봐도 대답 없고

어두운 참호에서
전우의 시체더미 속에서
나누어 먹든 피 묻은 주먹밥 그 추억

포화가 한반도 전역을 휩쓸던
그때 그 시절 조국 수호의 선봉에서
혈전의 고지와 능선마다
빗발치는 총탄
내내 온몸으로 받아 안으면서도

가슴에 새겨진 임전무퇴정신
끝까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전우여 백설이 휘날리는
혹한의 전장
십리길 포복으로 수류탄 총검으로
적진에 뛰어들어
아슬 아슬 한 필사의 육탄전

피로 물든 전투복
갈기갈기 찢겨진 그대 육신

하늘도 땅도
그대들의 기백 앞에 물러섰거늘

이고지 저능선
과도처럼 높은
우렁찬 승리의 함성
가시지 않았네.

태백준령 청산아 말해다오
신화도 기적도 아니었다
흔들리는 조국의 운명 앞에

그대들은
포화에 온몸 절단되어 쓰러지던
그 순간까지도
정성어린 애국 총정

나를 따라라 사자후
호국의 일념 이였기에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대가 남기고간 마지막 말
내 나라 내 땅이다
조국이며 조국이며 외쳤노라

오늘 호국 광장 이곳
걸음 멈춘 이들이여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의 불길
선진 조국 창조 근간으로
얼룩진 이 땅
푸르고 기쁨지게 했습니다

그대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긴
호국탑 아래
향로에 타오르는 향불의 향기는
먼 훗날 그대와 내가 만날
사랑의 약속

그대들은 전승의 주역
희망의 새 시대
영광스런 대한민국
호국의 별, 별이 되어
그 이름 조국과 함께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 연 찬

- 한국문인협회 회원
- 월남전 참전(무공수훈)

인천 향군, 구 군 회장 연수회



“향군 발전위해 앞장설 것”

인천시 향군 구 회장단이 5월7일 강화군에서 연수회를 개최하고 상호간 화합을 통한 조직 발전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향군의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미 남서부 향군, 미셸 박 부위원장에 감사패



동맹국 참전용사 묘역 조성에 기여

향군 미 남서부 지회(회장 이승해)가 한국전, 베트남전 동맹국 참전용사 묘역 조성에 힘써준 미셸 박 스틸 OC수퍼바이저 부위원장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위기 극복의 침병 / 충남 천안시 향군

위기가 곧 기회, 고난 극복하고 재 도약 꿈꾸는 천안 향군

리모델링으로 임대수익 늘어 ... 궁극에는 회관 이전 추진



◇천안시 향군회관

천안시 향군(회장 방수정)은 시내 중심지에 1994년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회관을 건립했다. 요지에 위치한 관계로 임대 수요가 많아 현재 회관은 자산 가치 40억원에 월 1천400만원의 임대 수익을 올려 재정자립 우수 회로 각급회 운영의 우수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천안시 향군의 이같은 성과는 회관의 입지도 한 몫 했지만 사무실 규모를 최소화하여 임대 공간 늘어왔던 방수정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노력과 희생에 그 이유가 있다.

실제 천안시 향군은 회의실 규모를 축소하고 회장 집무실을 축소된 회의실 귀퉁이에 마련하여 임대공간을 늘이는 긴축 운영을 통해 작은 임대 수익이라도 늘이는 노력을 지금도 계속해 오고 있다.

사무실 최소화, 임대수익 늘어 회관 이전 추진, 재정 건정성 확보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의 신 도심 조성으로 임대수익이 점차 줄어들고 회관 노후와 함께 주차시설 부족으로 임대난황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천안시 향군은 회관 리모델링을 통해 입주자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 획득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임대수익 확보를 위해 회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 과제인 회관 이전을 위해서라도 리모델링과 주차시설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판단하고 있다.

현재 천안시 향군회관이 과밀화된 구 도심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오히려 회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주변의 복잡한 상권과 회관에 입주한 다양한 업종의 점포로 회원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회관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임대업체와 유동인구가 정착 회원들의 접근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천안시 향군은 여러 관공서가 이주해 있는 신도심 지역으로 회관 이전을 추진해 부채를 줄이고 재정건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쾌적하고 안락한 회관을 마련, 회원 복지 증진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과거 이 계획 실현을 위한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내부 사정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던 만큼 천안시 향군은 철저한 준비와 함께 회 역량을 집중시켜 이를 실현한다는 다짐이다.

물론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임직원 및 회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천안시 향군 방수정 회장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방 회장의 일과는 향군업무를



◇천안시 향군이 조성한 무궁화 동산

제외하고는 유관 기관장들과의 유대강화에 집중되어 있다. 관련 공무원들과 수시로 면담하고 관련 모임에 적극 참여하여 소통하는 것이 일상이다. 향군 존재의 당위성과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원활한 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재도약 위해 하나로 뭉친 천안 향군 장밋빛 미래 꿈꾸며 물심양면 노력

이와 함께 안보단체 재향군인회의 지도자로서, 군 출신 안보 전문가로서 각계에 안보 강연을 통해 국민 안보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년 가까이 향군에 몸담았던 향군인으로서 향군의 정체성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천안시 향군은 재정이 상대적으로 넉넉했던 자립우수회로 타 조직의 부러움을 사 왔다. 그러나 지금 다가 온 재정 위기는 천안시 향군일지라도 피할 수 없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가 됐다.

다행스럽게도 천안시 향군은 스스로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 이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

방수정 회장의 지도력과 임직원들의 화합, 그리고 회원들의 향군사랑 정신이 하나가 되어 있는 천안시 향군에게는 극복 어려운 못할 사안이 아니라는 느낌이다. 천안시 향군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

통일 공감 체험활동, 청소년 안보의식 고양

하남시 향군, 지역 고교생 초청 안보 계도



경기도 하남시 향군은 5월14일 하남경영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초청, '통일 공감 체험학습' 행사를 가졌다.

'통일 공감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존재하는 안보 시설을 탐방하여 분단의 현실을 자각하고, 안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날 학생들은 하남시에 있는 항공단에서 병영체험을 하고 부대

에서 병영식사 체험도 했다. 또 일반인들이 출입하기 어려운 지역의 안보시설을 방문, 안보상황을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뿐만 아니라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희망과 변영의 한반도'를 주제로 한 이상노 경기도 향군 안보부장의 강연을 듣고, 3.1 운동이 우리 역사에서 갖는 독립적 의미를 되새겼다.

창원 의창·성산구 향군, 창원시장과 간담회

시민 안보의식 제고 방안 논의

창원시 의창·성산구 향군(회장 정인규)은 5월15일 창원시청을 찾아 허성무 창원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향군 소개 및 시민 안보의식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재향군인회는 나라가 어려운 때는 자유의 수호자로서, 조국 근대화 시대에는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많은 큰 역할을 다했다"며 "창원시도 재향군인회의 헌신을 기억하고 본받아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



다"고 밝혔다. 정인규 창원시 의창·성산구 향군회장은 "지역사회

의 안보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향군, 반공순국영사 위령탑 환경정화

서울 영등포구 향군이 5월28일 신길1동에 위치한 반공순국영사 위령탑을 찾아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영등포구 향군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 의식개선을 위한 취지로 매월 반공순국영사 위령탑 주변에서 정화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먼저 위령탑에

참배 후 곳곳에 방치된 담배꽂이와 각종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시설물 보수와 함께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는 등 위령탑 주변 상태를 점검했다.

글로벌 신한국인 대상 ... 16년째 장학사업 양순종 동두천시 향군 부회장



경기도 동두천시 향군 양순종 부회장이 5월10일 지역사회에 공헌활동을 활발하게 펼친 공로로 국회 본청 귀빈실에서 열린 2019 글로벌 신한국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양순종 부회장은 52년째 이웃을 위해 지역봉사와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우수한 후계세대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지금까지 16년간 14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양 부

회장은 이웃을 위한 봉사를 눈 감을 때까지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신한국인 대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2018년 한 해 국가발전은 물론 국민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국회의원과 자치 단체장, 광역·지방의원 및 각 분야별 리더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엄격한 심사 과정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정평이 나있다.

순국선열 호국정신 되새기며... 대전·충남 향군 여성회 현충원 정화활동

대전·충남 향군 여성회(회장 양갑숙)는 5월24일 호국보훈의 달 6월을 앞두고 국립대전현충원 장교 제1묘역을 찾아 묘비세척 및 주변 환경 정화활동을 펼쳤다.

양갑숙 여성회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한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었다”며 “유가족과 참배객들에게 더욱 안락한 참배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대전현충원을 찾아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전·충남 향군 여성회 회원들.

휴게소사업본부 다문화가정 2쌍 초청 야외 결혼식 거행

지역사회 공헌 및 친 향군 이미지 고양에 큰 역할



향군 휴게소사업본부 인삼랜드 휴게소는 5월23일 금산군청과 도로공사 무주지사와 협력하여 인삼랜드 휴게소 야외 수변공원에서 금산군 거주 다문화 가정 2쌍의 부부를 초청, 결혼식을 열어주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과 향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마련된 이날 결혼식에서는 이한홍

본부장이 주례를 맡아 식을 진행했으며 인삼랜드 휴게소 내 한식당과 우동코너에서 내외빈 및 객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다.

또 금산군청에서 결혼 예복 및 메이크업을, 도로공사 전북지역본부 무주지사가 차량, 신혼여행지 등을 지원했다.

휴게소 사업본부는 결혼식 지원 이외에도 연말 불우이웃돕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공공성 강화와 향군의 이미지 고양에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

임실 향군, 임실호국원 정화



전북 임실군 향군(회장 김대영)은 5월28일 호국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임실호국원 방문해 묘비 주변 정화 활동과 태극기 꽂아주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김대영 회장과 임직원은 매년 호국영령들 넋을 기리는 행사와 임실호국원 봉사활동을 전개해 안보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향군, 신규장성회원 간담회 개최



향군소개·안보현안토의

향군 조직복지국은 5월14일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2019년 신규장성회원 간담회를 주관하여 향군에 대한 소개와 최근 안보관련 현안에 대한 향군입장 등을 설명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5천만 국민 누구나! 재향군인회상조회

재향군인회상조회가 '국가대표급' 감동으로 동행하겠습니다.

상조상품

- 국가대표336
- 마음튼튼450
- 국민감동520
- *월1만원대로 부담없이 가입

크루즈 여행상품

- 동남아노선 5박 7일(2인)
- 서부지중해노선 8박 10일(1인)
- *풀패키지, 발코니객실, 전문인솔자 동행, 전노선 500만원대

향군전용묘역

- 야외봉안담
- 수목장지
- 실내봉안담(계획)

- 상조 상품가입으로 크루즈 여행서비스까지 회원특전으로 제공합니다.
- 장례서비스에서부터 장지제공까지 원스톱서비스로 모십니다.
-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고객감동을 실현합니다.
- 무료 병역이행상담, 회원복지물 운영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센터

1577-0720

여행상담

02-2218-7152

묘역상담

02-2218-7140

재향군인회상조회



각급회 소식

이웃에 봉사하고 안보 계도에 팔 걷어 ... 향군 각급회 활동

(4월21일 ~ 5월20일)

대구시 향군



대구시회 : 5월13일~17일까지 홍콩, 심천, 마카오 지역 해외 안보연수 실시.



수성구회 : 4월29일 수성구청을 찾아 김대권 수성구청장과 향군 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실시. 5월14일 용지역 네거리에서 교통질서 지도 봉사활동 실시.



달서구회 : 여성회는 4월27일 충북 괴산, 경북 안동, 예천일대 안보전적지 견학. 여성회는 5월1일 신당동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위한 반찬 봉사 및 급식지원 봉사활동 실시.



중구회 : 4월27일 남문시장네거리 및 경북여고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질서 지키기 계도 봉사활동 실시. 5월16일 중구지역 담당 예비군관리대장과 12개동 예비군 지휘관 초청 간담회 개최.

동구회 : 여성회는 4월30일 팔공노인복지회관에서 급식봉사 활동. 5월10일 미대동 딸기농장에서 딸기 따기 봉사활동 전개.

서구회 : 4월30일 신평리 네거리에서 거리질서 캠페인 실시.

북구회 : 4월23일 산격복지관에서 관내

노인들 대상 무료급식 봉사활동 실시.

인천시 향군



인천시회 : 4월23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 일대에서 시회 직원과 군·구 사무국장단이 참여한 가운데 향군의 발전과 직원의 화합 단결을 위한 워크숍 실시. 5월4일부터 7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산둥성 태항산 일원에서 직원 해외연수 실시.



동구회 : 5월4일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되었던 청남대 일대 안보견학행사 실시, 5월17일 향군회관에서 동구청 일대 환경정화 활동 실시. 5월1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안보의식을 고취하고자 금창동 주민들과 독립기념관으로 안보견학 행사 실시.

남동구회 : 4월25일 간석2동 주민센터와 함께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청소와 환경정비활동 전개.



남동구 간석4동회 : 4월29일 감우제 전승기념관을 찾아 안보의식 배양과 화합단결 도모.

부평구회 : 여성회는 5월2일 부평역 북광장에서 사랑의 쌀 운동본부에서 주최한 인천광역시 홀몸어르신 합동팔순잔치에 참여, 봉사활동 전개.

중구회 : 5월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우리료양병원에서 공연봉사 실시.

강화군회 : 4월26일 송해면 참전기념탑에서 환경정화활동 실시.

경기도 향군



부천시회 : 여성회는 4월27일 부산 해운대 및 태종대 일대에서 안보연수회 겸 단합 행사 가져.

과천시회 : 4월24일 춘천 일대에서 친목 행사를 겸하여 체육대회 행사 실시.



이천시회 : 4월21일, 22일 부산UN기념공원 및 다부동전투전적지를 방문, 참배하고 회원 안보의식 고취. 여성회는 5월8일 어버이날을 맞아 6·25참전 유공자들을 초청, 위로행사 실시.



성남시회 : 여성회는 5월8일 성남시청 은누리실에서 열린 제41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선물포장,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등 봉사활동. 5월14일부터 17일까지 연길, 두만강변, 윤희동생가, 백두산 천지 등 백두산역사탐방 행사 실시.

수원시회 : 5월10일 시청 앞 88올림픽공원, 인계동 유희거리 일대에서 향군그린운동 실시. 여성회는 5월9일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장애우 30여명의 봄 소풍 행사 도우미 봉사활동 전개.

양주시회 : 5월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6·25참전 유공자들을 초청하여 위로행사 실시. 5월9일 목천 독립기념관과 아산현충사를 견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안산시회 : 5월16일 철원 제2땅굴, 평화전망대, 월정역사, 철원군 노동 당사를 둘러보는 안보전적지 답사행사 가져.

강원도 향군



홍천군회 : 5월1일, 3일 나라사랑 정신과 호국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해군 제1함대사령부,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을 돌아보는 안보현장견학 실시. 5월8일 춘천시 향군, 인제군 향군을 초청, 향군회관에서 상호친목을 위한 교류 간담회 가져.

충청북도 향군



충북도회 : 5월7일 도 회의실에서 시 군 회장 및 사무국장 간담회를 갖고 회 발전을 위한 방안 논의.



옥천군회 : 4월25일 대전 튼튼병원과 회원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 가져.

충주시회 : 5월17일 강화도 전쟁기념관 안보현장 견학 행사 실시.

대전 충남 향군



대전 충남도회 : 여성회는 지난달 14일부터 16일 서해안 최북단 백령도를 찾아 전망대와 천안함 추모비 등을 돌아보며 호국안보의식 함양.



대전 대덕구회 : 4월27일 남한산성 역사 문화 탐방을 실시, 안보의식 고취.

대전 서구회 : 5월10일, 11일 강원도 일대 안보 현장 견학 행사를 갖고 안보의식 함양.



아산시회 : 4월, 5월 2달동안 6. 25 참전 유공자 재가방문을 통해 참전유사 돌봄행사를 실시.

당진시회 : 5월9일, 10일 당진시 개발위원회 위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통일 대비 당진시민 리더스 아카데미 일환으로 강원도 양구와 고성군 일원 안보견학.

전라북도 향군

전주시회 :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소속 전주영아원을 방문, 영아원생들이 사용할 목욕타올 지원.

군산시회 : 4월25일 은과공원내 위치한 무공수훈자 공적기념비 앞에서 거행된 무공수훈자회 창립 30주년 및 공적비 건립 14주년 행사 참석.



부안군회 : 4월25일 여수 전라좌수영, 진남관, 이순신 거북선 광장, 등을 둘러보는 안보체험 행사 실시. 5월9일 경북 의성군 향군을 초청하여 진서면 곰소습터퇴환관에서 국민화합 영호남 친선 교류행사 열려.



김제시회 : 4월26일 안동시 향군을 초청, 진안 마이산 일원에서 호남 영남 국민화합 교류행사를 가져.

무주군회 : 여성회는 5월5일 어린이날을 맞아 관내 어린이집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동 가져.



남원시회 : 4월26일 경북 영천시 향군을 초청, 봄날가든에서 제21차 친선교류 행사 실시. 여성회는 4월27일 아영 봉화산 철쭉제에서 손맛사지 봉사활동 실시. 5월3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광장 청소년 봉사활동 참가. 5월8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제89회 춘향제행사에서 봉사활동.

정읍시회 : 4월25일 장명동 소재 충훈탑 환경 정화활동 실시. 여성회는 4월27일, 28일 양일간 열린 제14회 전국 좌식배구대회에서 중식 배식 봉사활동. 5월7일 황도현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에서 자연환경정화활동.

고창군회 : 4월26일 고창군청에서 열린 내고장 문화유산 지킴이 발대식에 참석, '김정희 고가' 문화지킴이 위촉장 수령.

익산시회 : 4월23일 예술문화의 거리에서 불법광고물 제거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정화 활동 실시.

순창군회 : 5월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6·25 참전유사 위문. 5월15일 적성면 다목적 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된 어르신 행복나눔 큰잔치 참석.

완주군회 : 5월16일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들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베트남 기념탑 행사 참석.

광주 전남 향군



영암군회 : 5월11일 포로수용소를 비롯한 경남 거제시 일대 안보전적지 체험행사 실시.

경상북도 향군

영주시회 : 4월25일 육군 제3260부대와 협조하여 3세대에서 영광중학교 학생 125명을 초청하여 안보교육 및 부대개방 행사 실시.

문경시회 : 4월27일부터 5월5일까지 열린 문경 찻사발 축제현장에서 향군법 개정안 폐기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실시. 4월29일 6·25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을 펼치고 있는 육군 제5837부대 문경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



영덕군회 : 4월23일 강릉 함정전시관 등을 찾아 안보의식 고취.

상주시회 : 4월25일 여수 진남관 등 임진왜란 전적지와 유적지를 방문, 회원 안보의식 고취.



경산시회 : 5월 11일 관내 중 고등학교 전교 학생회장단을 초청, 다부동전적지 기념관, 칠곡보, 호국기념관, 영천 호국원 등을 둘러보는 안보현장 견학 행사 실시.

경남 울산 향군

경남 울산시회 : 여성회는 5월14일 김해 보훈요양병원을 찾아 봉사활동 전개. 5월17일, 18일 강원도 고성에서 '향군 여성 리더쉽 강화를 위한 워크샵' 가져.

하동군회 : 5월1일 하동여고 교직원과 학생들을 초청, 이순신 광장·6·25참전 학도병 기념비 등을 둘러보는 안보견학행사 실시. 5월10일 광양시 향군을 초청, 향군 회의실에서 상견례를 갖고 친목 도모위한 단합 행사 가져.



의령군회 : 4월30일 여수일대 임진왜란 전적지를 탐방하고 안보의식 고취.

통영시회 : 여성회는 4월30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성금 50만원 전달. 여성회는 5월8일 어버이날을 맞아 대건 요양원을 찾아 봉사활동 전개.

김해시 북부동회 : 여성회는 4월25일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비롯한 경북지역 안보현장 견학행사 실시.

양산시회 : 4월25일 6·25참전유사들을 초청, 영천호국원, 기념공원등 전적지 순례 봉사활동 참여. 여성회는 5월18일 장애인 복지시설 '늘푸른 집'에서 장애인 목욕, 점심 식사 봉사 실시.

거제시 장승포동회 : 여성회는 5월8일 어버이날을 맞아 보훈가족 중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 위문품 전달.

진주시회 : 여성회는 5월3일 함안보, 창녕 우포늪 등을 견학하고 환경의 소중함 깨달아.

남해군회 : 여성회는 5월5일 남해스포츠파크 어린이날 행사에서 오후 봉사 활동.

창녕군 도전면회 : 5월14일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을 찾아 안보의식 교양.

창원 의창 성산구회 : 여성회는 4월23일 관내 장애인급식소를 찾아 장애우를 위한 급식봉사 활동 전개. 청년단은 5월12일 창원 만남의 광장 운동장에서 우산 무료 수리 봉사.



합천군회 : 5월13일 포항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을 비롯해 영덕 장사상륙작전기념공원을 찾아 안보의 소중함 체득.

창원 성산구 사파동회 : 여성회는 4월22일 성산복지관에서 급식봉사. 5월6일 대방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경로큰잔치 행사 봉사활동.

창원 의창구 봉림동회 : 5월11일 한들공원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열린 효사랑 큰잔치 참석.

창원 의창구 의창동회 : 5월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열린 어르신 큰잔치 행사 봉사활동.

창원 의창구 팔용동회 : 5월8 팔용동 행정복지센터 동민 홀에서 열린 어르신 큰잔치 행사 봉사활동.

창원 의창구 명곡동회 : 5월17일 6·25 참전 창원지회를 방문, 위문금 전달.

울산 중구회 : 5월3일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동천강 주변 일대에서 쓰레기 줍기 및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제거 등 환경정화활동.

울산 울주군회 : 5월3일부터 6일까지 열린 용기축제에서 먹거리 봉사활동 전개.



울산 남구회 : 5월13일 현충탑에서 거행된 제49주기 고 차성도 중위 추모제 참석. 5월1일 울산대공원 내 현충탑을 참배하고 호국영령 열 가려. 5월8일 어버이날을 맞아 임원 친목 골프대회 개최. 여성회는 4월23일 6·25참전유사 및 전문군경미망인회 및 봉사자들을 초청하여 경주일대 문화탐방행사 실시.

제주도 향군



제주도회 : 4월27일 회원 및 내빈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제1회 한마음 결의대회'를 개최. 5월1일, 8일 2회에 걸쳐 남해어업관리단 직원 107명을 대상으로 박광수 향군 안보교수를 초청, '재난대응 기본 힘'을 주제로 나라사랑 안보교육을 실시.

친목단체 활동

상임운영위원회



갑종장교전우회(회장 김영갑)는 5월15일 향군본부 중회의실에서 상임운영위원회를 거행했다.

석촌호수 걷기행사



병참동우회(회장 조국연)는 4월27일 회원 친목행사로 석촌호수 둘레길 걷기행사를 거행했다.

병과창설 기념행사



수송동우회(회장 서규철)는 지난 4월23일 육군회관에서 병과창설 제68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정기총회



영관장교연합회(회장 박우식)는 4월26일 삼성호텔에서 제29차 정기총회를 거행했다.

나라사랑 현장체험활동



재향여군연합회(회장 이재순)는 5월15일 행정안전부 후원으로 아산현충사에 나라사랑 현장체험활동을 거행했다.

정기총회



육종전우회(회장 김정규)는 5월9일 KW컨벤션웨딩홀에서 정기총회를 거행했다.

포병여단 위문



포병전우회(회장 이국범)는 5월16일 1포병여단을 방문하여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문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친목단체 소식 (날짜 순)

- ▲학도의용군회 : 6월1일 태백중학교내 충훈탑에서 태백중 전몰학도 병 추모제. 6월14일 춘천시근화동 평화공원에서 강원지역 전몰학도의용군 위령제.
- ▲ROTC중앙회 : 6월1일 건국대 새 천년관에서 제58주년 ROTC의 날 행사.
- ▲갑종장교전우회 : 6월3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참배행사.
- ▲3사관학교총동문회 : 6월3일 27사단 차성도 대대 내에서 고 차성도 중위 추모행사.
- ▲육군본부직할결사대전우회 : 6월4일 백골병단 전적비 앞에서 전몰장병 합동 추모식.
- ▲해병대전우회 : 6월4일 현충원 해병대 묘역에서 참배행사. 6월15일 양구 도솔산전투위령비에서 제68주년 도솔산 전투 전승 추모행사.
- ▲육군예비사관총동문회 : 6월5일 백마고지전적비에서 화살머리고지전투 추모행사.
- ▲포병전우회 : 6월5일에서 9일까지 강원도 고성에서 임진각 구간에서 DMZ지역 동서횡단 자전거 순례. 6월13일 국립현충원 참배.
- ▲한국육군군우회총연합회 : 6월6일 서울 현충원 유격부대전적위령비에서 제8240전사자 합동위령제.
- ▲정보동우회 : 6월6일 신갈 충훈탑에서 현충원 추모행사. 6월12일 서울대공원에서 창립 24주년 기념행사 및 스티플 등산.
- ▲대령연합회 : 6월12일 향군본부 회의실에서 전반기 운영위원회의.
- ▲전몰군경미망인회 : 6월13일 중앙보훈회관 대강당에서 제41회 장한 어머니상 시상식.
- ▲전몰군경유족회 : 6월18일 중앙보훈회관 대강당에서 제42회 효자 효부상 시상식.
- ▲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 : 6월19일 공군회관에서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 : 6월21일 낙동강 전승기념관에서 제22회 6·25참전 순국 소년병 위령제.
- ▲육군학사장교총동문회 : 6월22일, 23일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제12회 한마음 페스티벌.
- ▲성우회 : 6월27일 향군본부 회의실에서 전반기 운영위원회의.
- ▲백골전우회 : 6월29일 영등포구 양화동 폭포수 공원 내 전적비에서 6·25 한강방어 전몰장병추모제.

※행사일정은 단체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향군 우대가맹점

▲ 가맹점협약 업소현황

전국 1,462개 업소

▲ 이용방법 :

사용 시 향군회원증, 여성회원증, 장성회원증 제시

*숙박시설, 골프장 등 이용 시 사전 예약

▲ 향군 우대가맹점 찾기

- 향군 홈페이지(http://korva.or.kr) 향군 우대가맹점 검색

*이용 희망지역, 업종 및 상호명으로 검색

- 사용 예정지역 시·도/시·군·구 재향군인회에 전화 문의

▲ 신규 가맹점 현황

병·의원/의료기기

- 리더스치과 (경북 영천시 호국로 45) 054-334-1689 : 10%
- 웃는얼굴치과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031-231-2879 : 10%
- 으뭇보청기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52) 032-330-9105 : 50%
- 통영서울병원 (경남 통영시 남해안대로 857) 055-644-1777 : 15%

기타

- 1급통영자동차정비공업 (경남 통영시 남해안대로 529) 055-647-0440 : 10%
- 남대문안경백화점 (인천시 부평구 주부토로 2) 032-361-7575 : 30%
- 새영천꽃도매 (경북 영천시 구읍2길 6) 010-4436-5632 : 10%
- 서광디자인광고 (경북 영천시 장수로 31-4) 010-4147-2282 : 5~10%
- 한독병원장례식장 (경기도 수원시 경수대로 487) 031-212-4444 : 30%
- 호텔리조트마린제주 (제주도 제주시 서부두 2길 20) 02-777-5080 : 15~40%

▲ 우수 가맹점 현황

병·의원/의료기기

- 대구의료원 (대구시 서구 평리로 157) 053-560-7575 : 10%
- 대한병원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 590) 1522-3266 : 10~20%
- 동작경희병원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46) 02-822-8112 : 10%
- 세움치과 (광주시 서구 치평동 1185) 062-232-2875 : 20~40%
- 위플란트치과의원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73) 02-432-2275 : 30%
- 인천마디병원 (인천시 계양구 계양대로 204) 1644-8344 : 20%
- 통영서울병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603-11) 055-644-1777 : 15%

숙박·리조트

- 라마다문경새재호텔 (경북 문경시 새재2길 32-3) 054-504-7077 : 특별할인
- 렉시제주요트투어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54-17) 1544-2988 : 40%
-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전남 목포시 상동 1144-7) 061-285-0100 : 30%
- 쇠소깍해양레저타운 (제주도 서귀포시 쇠소깍로 151-8) 064-733-0252 : 40%

기타

- 국민요양병원장례식장 (울산시 남구 야음2동 653-3) 052-269-0119 : 10%
- 그랑프리안경원 (인천시 남동구 구월로 62) 032-426-9177 : 20~30%
- 나사렛대학교 평생교육원 (충남 천안시 월봉로 48) 041-570-7753 : 20%
- 당진장례식장 (충남 당진시 남부로 28) 041-354-4444 : 10~15%
- 두툼한공룡갈비 (강원도 속초시 청초호반로 82) 033-635-7383 : 10~20%
- 힐리힐리워 (경남 진주시 동진로 162) 055-752-7030 : 10%
- 부산시지철대학교 (부산시 사상구 주례로 57) 051-320-2000 : 20%
- 안양장례식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44번길) 031-456-5555 : 20%
- (주)복의정부자동차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57-19) 031-878-1000 : 10%
- 중앙스튜디오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234) 02-844-1177 : 30%
- 청원한우마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산2길 5) 043-241-8855 : 10%
- 청주한우(청우)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47) 043-287-1104 : 10%
- 청풍명월한우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천북로 153) 043-241-6464 : 10%
- 행복주단 (대전시 동구 중교로 119) 042-257-4084 : 20%(현금결제)

향군장학기금

※ 기간 : '19.4월 23일 ~ 5월 23일
※ 단위 : 기부구좌(기부누계), 1구좌 1만원

▶ 개인

- 일반회원 JSA 경비대대 이한수 1(17)
- 일반회원 ㈜대창농축 오승훈 1(35)
- 일반회원 대구시설관리공단 신현우 1(35)
- 일반회원 다운중학교 교사 이미래 1(33)
- 일반회원 우리은행 신현정 2(28)

▶ 정기 기부

- 일반회원 이정호 1(256)
- 권율부대 선거이 연대 강모아 1(46)

♣ 따뜻한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재단 : ☎ 02-417-5887)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홈페이지에도 기부현황을 게시하였습니다.

향군장학기금 기부 계좌 안내

계좌번호 : 국민은행 801701-04-194529
예금주 : 재단법인 향군장학재단



건강정보

환절기에 심해지는 『혈관운동성 및 알러지성 비염』

증상

비염은 비강을 덮고 있는 점막의 염증성 질환을 말하며, 비출혈과 코막힘, 수양성 비루(콧물), 재채기, 눈과 코 주위의 가려움증, 후비루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중 코막힘, 재채기, 수양성 비루, 가려움증을 알레르기 비염의 전형적인 4대 증상이라 함. 가려움증이나 재채기 등은 알레르기 비염에서 더 흔하게 나타나 증상만으로 구별할 수는 없다. 그의 눈물, 두통, 후각감퇴, 폐쇄성 비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원인

알레르기 비염은 특이 항원에 의해 과민반응을 보여 증상이 나타나는 반면에, 혈관운동성 비염의 경우 상기도의 과반응성으로 인해 나타난다.

온도 변화, 담배연기, 공해 물질과 같은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와 같은 비특이적인 환경 변화에 정상 방어기전이 과장되어 반응하여 증상이 나타나게 되며,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에도 증상이 발현된 경우에는 비특이적 자극에 의해 알레르기 증

상이 악화될 수 있다.

진단 · 검사

비염의 경우 증상, 가족력, 주변 환경, 이전의 치료 경력 등에 대한 자세한 문진이 진단에 가장 중요하며, 비염으로 이비인후과를 찾게 되면 내시경으로 코 내부를 확인하여 점막 및 구조적 이상을 확인하게 되고, 알레르기 비염이 의심되는 경우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을 찾는 피부단자검사나 혈액검사 등을 통해 원인을 알아낼 수 있다.

치료방법

알레르기 질환은 짧은 기간 치료로는 완치가 어려우며 꾸준한 관리를 통하여 증상을 예방하고 악화 시에는 빠른 대처가 필요함.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 항원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거나 줄여주는 것으로 환경관리(회피요법)이다.

비염 치료는 증상완화를 위한 약물요법이 가장 기본적이며, 경구 약제 및 비강분무형 스프레이를 주로 사용한다.

또한 원인 물질을 찾아 3-5년 정도 장기간 회색시킨 항원을 주사하거나 혀 밑에 넣어 면역반응을 변화시켜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 면역요법이 있으며 구조적 이상이 동반되었을 때는 수술적 교정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수술적 치료는 약물치료에 실패했거나 증상이 심한 환자에서 주로 시행한다.

예방법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요소에 대한 노출 회피가 증상을 막는 데에 가장 중요함. 비염은 자극에 의해 증상이 유발되기 때문에 금연은 물론 간접흡연도 유의해야 하며 미세먼지, 황사, 꽃가루 등이 심한 날은 가능한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고 외출 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착용하며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실내를 청결히 유지하여 집먼지진드기나 곰팡이 등의 알레르기 유발요소를 멀리하고 애완동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멀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여행정보

6월에 가볼만한 곳

울산 고래축제 2019

고래의 도시 울산에서 6월7일부터 9일까지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에서 '2019 울산고래축제' 가 펼쳐진다.

고래박물관, 고래바다여행선, 고래생태체험관등 기존의 고래인프라를 비롯해 고래문화마을이 새롭게 개장하였으며 고래의 꿈! 바다의 꿈! 울산의 꿈! 을 주제로 고래와 바다환경을 보호하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준비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고래문화재단 052-226-1991>

고창 갯벌축제 2019

석양노을 내려앉은 바람공원의 아름다운 속에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고창갯벌축제가 오는 6월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고창군 심원면 일대에서 펼쳐진다. 고창갯벌체험축제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 핵심지역이며 랍사르습지로 지정된 고창갯벌에서 그동안 별도로 운영됐던 수산물축제와 갯벌축제를 통합해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체험축제로 마련됐다.

<고창갯벌축제위원회 063-560-2731>

한산모시문화제 2019

2019 대한민국 유망축제로 선정된 '제30회 한산모시문화제' 가 6월7일부터 10일까지

한산모시의 역사가 살아 있는 충남 서천군 한산모시관에서 열린다.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 <한산모시짜기>의 우수성을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 관광객 등에게도 널리 알려 한산모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산업형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산모시문화제'는 한국 최고의 전통천연섬유 한산모시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직접 체험하는 장이다. '한산모시화제'는 한산모시를 중심으로 무더운 여름날 옷의 가치를 재해석하고 여름 전에 꼭 가야하는 대표 축제로 인정받고 있다.

<한산모시문화제추진위원회 041-950-4256>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2019

문화콘텐츠산업의 떠오르는 블루오션인 '매직'을 테마로 한 국내 100만 매직 매니아의 꿈의 축제인 국내 유일 세계 최대 규모의 매직 페스티벌인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이 6월25일부터 30일까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열린다.

해운대 해수욕장의 100만 인파가 관람하는 개막식, 본 행사인 화려한 나이트 매직 갈라쇼, 부산국제마술대회, 마술 강의, 글로벌 키즈 매직쇼, 매직드라마 등 국내에서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종합 매직쇼가 다양하게 펼쳐진다.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 051-626-7002>

전우여! 어디에 ...

• 마법구씨가 1984~1985년 경 군복무 시절 파견되었던 9사단(백마부대) 공병대대에서 만났던 김성경 선임하사를 찾고 있습니다. <011-625-8349>

• 박효민씨가 2002년 춘천 1군지사 82정비대대 1중대 페처리반 반장을 하신 정원철 군무원님을 찾습니다.

박효민씨는 1중대 수집소대 페처리반에서 군 복부를 했다고 합니다. <010-4994- 0311>

• 81년에서 84년 838알파포대 수송부에서 101호 운전병으로 근무했던 김종영씨가 이우형, 이은선, 전종화, 이원석, 이진형, 이경래, 김진규, 진광소, 최승식 등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들을 찾습니다. <010-7148-5299>

• 양승철씨가 옛 전우 이무협, 유기철, 김방규, 신유, 김성환씨 등 전우를 찾습니다. <010-3563-9506>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재향군인신문 발행인 김진호 편집인 안찬희
인쇄인 배성한 간 별 월 간

2013년 12월 5일 등록번호 서울 다 10757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서초동, 1365-16)
전화 (02)416-0923 팩스 (02)417-5416

외부필진의 기고문 및 광고내용은
향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보정세보고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행보와 비핵화 전망

남북관계 온도 차 극명, 대북정책 호흡 가다듬어야

지난 2월28일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은 결렬됐지만, 우리를 비롯해 미국과 북한 모두 비핵화 프로세스 동력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하노이 회담을 실패한 회담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더 큰 함의로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평가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하노이 회담결렬이후 처음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3차 미북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을 세계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매우 좋으며 3차 미북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은 대화의 모멘텀은 강조하되 미국이 제시한 '빅딜'을 북한이 수용할 때까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도 동시에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미 모두 하노이 회담결렬 이후, 협상의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는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빅딜(big deal)'과 북한의 '단계적 해법' 그리고 촉진자로서 미북간의 간극을 좁히려는 우리의 '조기 수확(early harvest)'과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은 여전히 수렴되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북한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종결되어 다양한 대내외 행보를 보였다. 제14기 1차 최고인민회의, 그리고 4월 25일의 북·러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김정은 중심의 권력구도를 보다 공고히 함으로써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그의 지도력에 대한 의구심을 씻어내려 노력했고, 또한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설혹 미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며 수세적인 입장에서는 협상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동시에 철저한 '민족공조'의 수용 없이는 남북한 관계의 발전도 어려울 것이라는 뜻을 전달하면서 비핵화 대안 제시보다는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5월 4일과 9일에 단거리 미사일 혹은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강한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행보를 평가해보고 북한 비핵화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행보

대미 메시지와 대남 메시지의 차별화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이 미국 측에 대해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하노이 회담의 합의 불발은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의한 것이고 둘째, 북한은 '자력갱생'을 통해 미국의 제재 압박을 분명히 견뎌낼 수 있으며 셋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길은 열려있지만 기존 입장을 바꾸어야 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점이다.

북한으로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책임을 미국 측에 돌리면서도 비난의 수위조절을 함으로써 대화와 협상 자체를 종결시킬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자신들의 제재 완화/해제 요구의 정당성을 부각하는 한편, 회담 합의 불발의 책임을 미국 탓으로 돌리는 대외/대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했다.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길' 역시 여지만을 암시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는 미국과의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지만, 협상의 결렬을 먼저 선언하지는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북한은 한국에 대해서도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민족공조'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즉,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어떤 절충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북한의 입장에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것이다. 첫 번째의 방법은 기존의 남북 간 합의 이행에 차질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한국의 태도에 따라 향후 남북한 관계 발전이 좌우될 수 있음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의 표출로도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직설적 화법으로 한국을 압박하는 것이다.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조선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화법은 결국 추후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대화 채널의 가동이나 남북 교류·협력 역시 우리의 태도를 보아가면서 결정하겠다는 의사의

피력이라 볼 수 있다.

내부 권력구도 강화와 새로운 통치 방식의 모색

지난 4월 14기 최고인민회의의 출범을 기점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권력기반이 탄탄하다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했다. 이는 대미 메시지 측면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비록 정상적인 체제의 민주적인 선거의 결과는 아니지만,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통해 나타난 새로운 북한의 권력구도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도전할 만한 세력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대미 협상력의 측면에서 북한이 당장 미국에게 양보를 할 동기가 크지 않음을 과시할 수 있는 것이다.

'자력갱생'이 14기 1차 최고인민회의와 그에 앞서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 그리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관통하는 키워드였다는 점도 인상적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오늘의 정치정세 흐름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내부적으로 경제발전의 호기를 놓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는 의기도 있었지만,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제재의 조기 완화나 해제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확인된 만큼, 이는 우회적인 대미 메시지의 성격도 분명히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즉, 김정은 위원장로서는 제재가 당분간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견뎌낼 역량이 있으며, 제재카드를 가지고는 결코 북한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대내외적 특히 미국에게 과시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중 안전판의 확보 측면에서의 대러 외교

김정은 위원장은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라는 전통적 후원세력 이외에도 러시아라는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있다는 메시지를 워싱턴에게 던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안전판이 존재하는 만큼, 그들의 '자력갱생'이 결코 공허한 외침이 아니며, 따라서 먼저 양보적인 조치를 제안하고 나와야 할 것은 미국 쪽이라는 말을 전달하고 싶었을 것이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북·러 관계의 발전은 북한의 운신폭 확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비록 북한이 그들의 경제적 생존을 위해 2000년대 이후 중국 쪽에 많이 의존해 왔지만, 이런 추세가 중국에만 편향되게 이루어질 경우 중국에 대한 종속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러시아 어느 한쪽에만 경도된 정책을 폈을 경우, 얻는 이득보다는 손해가 더 컸던 북한 외교사도 감안을 했을 것이다.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선택

하노이에서 북한이 보여준 태도, 그리고 3월~5월에 이르는 기간의 행보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선 동기를 다시 한 번 분석할 수밖에 없게 한다.

향후 북한이 선택하게 될 경우의 수는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그 이전까지 '중전선안'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평양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이의 이행을 요구하고 나오고, 다시 2018년 하반기에 들어서는 목소리를 상대적으로 낮추는 등 그들의 행동이 일관되지 않은 면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경우의 수는 북한이 실제적으로 분명한 비핵화 의지가 있음에도, 여러 가지 제반 여건 즉 대미 불신의 문제로 인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북한 역시 확실한 비핵화의 최종적 종결점을 확정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 경우이다. 즉, 전반적인 여건이나 추세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경우,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상태에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임하는 한편 제재의 완화·해제를 조기에 이끌어낼 수 있다.

반면, 대북제재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인 운신의 폭이 심각하게 저하될 경우에는 수세적인 측면에서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되, 가능한 최소한의 핵능력은 유지하기를 원할 것이다. 또한, 설혹 미국과의 협상을 북한이 먼저 제의하는 형국이 되더라도 이것이 대내적으로 굴욕적인 타협으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모양새를 갖추기를 원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의 시정연설에서 '새로운 길'이나 '협상 결렬'을 언급하지 않고 금년 말까지 기다리겠다고 한 발언은 이 경우의 수에서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그의 발언은 결국 금년 말까지는 대북제재가 완화·해제되지 않더라도 이것이 북한에 심각한 정치·경제적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계산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당분간 제재와 관련된 '표정관리'를 계속해 나가면서 먼저 미·북 대화를 제의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남북한 관계는 일단 이러한 대미 행보가 이루어진 이후 우리의 태도에 따라 속도와 완급을 조정해 나가려 할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이나 고위급 회담 등 대화채널의 가동 역시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자신들의 의제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판단이 들지 않는 이상 대화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크며, 남북 정상회담 역시 또 한 번의 판문점 회담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보다는 평양에서의 정상회담을 선호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 5월 4일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대미용보다는 대남용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발사체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결과나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움에 대한 위반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즉, 대화 국면을 근본적으로 뒤집을 사건은 아니라는 점에서 북한은 향후 미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긴장이 재현될 수도 있음을 우회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반면, 한국의 입장에서 이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은 현 국면에 대한 불만을 한국에 대해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북한 비핵화 관련 우리의 역할

북한이 3월 이후 보인 행태를 감안할 때, 우리의 입장에서도 남북한 관계 운영 측면에서 방향 수정이 불가피한 시점이 되었다.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남북한 관계의 중요성을 바라보는 서울의 시각과 평양의 관점 사이에는 분명한 온도차가 존재하며, 이 현실을 간과하고서는 북한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 역시 대북정책에 있어서 호흡을 가다듬어야 한다.

첫째, '신한반도체제'로 대별되는 남북한 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공동번영 비전은 중·장기적으로도 분명히 유용하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점이다. 그러나 이것의 단기간 구현에 집착하면 할수록 우리의 운신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둘째,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지향하기는 하지만, 이를 수세적인 측면에서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 한국의 대안이 만약 주변국이나 국제사회 대다수가 공감하고 지지하는 안이라면 그 역할을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한국이 제안하는 한반도 비핵화 방안이 왜 더욱 합리적이고 미·북 양측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차분히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에 대해 대북제재에 대한 융통성 있는 자세를 제의하는 것에 못지않게, 초기단계부터 과감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평양에 지속적으로 발신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이행을 기다려주기보다는 촉구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의 5월 4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와 관련해서는 유감 수준을 넘어선 강력한 메시지의 전달이 필요하다.

셋째,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되었다는 '톱다운(top-down) 방식'에 대한 국내적 합의와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톱다운 방식'을 실무협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나 정부부처 내부의 이견을 돌파하고 지도자간 과감한 결단에 의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분명히 유리한 방식이다. 그러나 이 '톱다운 방식'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일방통행이나 관련 정보의 공유 미흡, 일방적 소통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개념, 범위 그리고 접근 방식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중간 수준의 딜", "굿 이너프 딜", "조기 수확"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유리하고 적합한 방식, 그리고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설정하는 것이다. 단순히 대화와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접근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비핵화를 강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항구적인 평화의 제1차적 조건이 비핵화이기 때문이다. 핵문제에 당사자로서 북핵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실질적 해결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당사자'가 이 문제를 절실히, 그리고 완전하게 해결하려는 의지가 약하다는 인상을 줄 경우, 한·미 공조와 남북협력 모두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참고자료】

1.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행보, 아산정책연구원, 2019. 5. 8